

갈수록 뜨거워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

이·용·청·구에 천안까지 가세... 자존심 건 5파전

(이천·용인·청주·구미)

구미

임대료 등 전폭지원, 입지 불리

청주

교통편의 부각, 기존 공장도 장점

용인-이천

입지 훌륭, 수도권 규제 풀어야

천안

교통, 산업단지 내세워 뒤늦게 가세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와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희망2019! 대구·경북 시민들 마음속엔 한마음축제' 모습. /SK하이닉스



이천시는 이천시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등 유치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천시

A씨는 지난 설 연휴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구미국가산업5단지 인근 표지판에 'SK로'라는 새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리 곳곳에는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시민들의 대화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들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청북도 청주와 경상북도 구미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지난 달 말 충청남도까지 가세하면서 5파전으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도가 입지적 장점으로 지지를 이끌어내는 상황, 구미는 경북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론에 이어 전폭적인 지원까지 내걸었다.

◆경북, 반도체 클러스터에 '올인'

구미시는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어, 오는 4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하는데 따른 위기 의식이 크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꼭 구미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경상북도 역시 구미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인근 지자체들은 구미시의 클러스터 유치를 지지하면서 공동 행동을 진행 중이다. 3개 지자체는 지난달 30일 공동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520만 대구경북시도민이 클러스터 입지를 응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계에서도 구미 유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구미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지역 균형 발전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백 의원의 아내인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뿐 아니다.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업 5단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미 조성된 단지라 사업승인에 필요한 최대 5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반도체 관련 기업인 SK실트론이 있는 만큼 클러스터 구축에

도 용의하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도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측면에서도 첨단전자산업 중심 고속도로 우수인력 10만명이 확보됐고, 협업 가능한 중소기업도 3200여개나 소재하고 있다고 구미시는 밝혔다.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에 자유로울뿐 아니라, 깨끗한 수질의 풍부한 수량을 갖춘 낙동강도 주요 입지 조건으로 들었다. 청정 환경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그 밖에도 구미시는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변전소와 공업용수시설, 일자리 사업예산까지 선물하겠다고 나섰다. 인근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고 직원을 위한 마을까지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 이름 개명까지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충청·경기 인프라 경쟁

그러나 구미가 클러스터를 유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데다가, 당장 수도권에서 구미로 인력

파견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최근 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도 3만6609명 참여에 머물면서 무산됐다.

충청도는 이같은 점을 공략해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논리로 클러스터 유치전을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있는 만큼 클러스터 입지로 검증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협력업체 160여개가 청주 지역 곳곳에 위치했으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KTX 오송역, 청주 국제공항 등 교통편의도 부각했다.

뒤늦게 가세한 충남도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내세워 천안과 아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안시는 서북구 '국립 축산과학원' 용지인 5.1㎢를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200여개 반도체 관련기업과 2022년 준공 목표인 북부BIT 산단도 장점으로 꼽힌다. 천안과 아산에 걸쳐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충남 클러스터 유치를 지지하며 지원 사격을 시작

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입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유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를 내세워 유치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내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치 활동에 한창이다.

용인시 역시 100만㎡가량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클러스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천과 비교하면 서울보다 더 가깝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과도 인접해서 협력사와의 연계도 훨씬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을 내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단, 경기도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용인시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왕좌 이어 구매도 '큰 손'

가장 많이 팔면서 가장 많이 구매 점유율 소폭 하락에도 선두 '굳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의 '큰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18년 글로벌 반도체 고객업체 톱 10'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434억2100만달러로 가장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는 업체였다. 전년보다 7.5%나 늘었다. 점유율은 9.1%로 전년(9.6%)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선두 자리는 굳건히 유지했다. 2위인 애플은 418억8300만달러로 점유율 7.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면서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기업이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액은 86조2900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중국 업체들은 반도체 구매액을 대폭 늘리면서 순위를 급격하게 올렸다. 전년과 비교해 화웨이는 45.2% 많은 211억3100만달러를 지출하면서 점유율 4.4%로 2계단 뛴 3위였다. 샤오미도 62.8%나 많은 43억6400만달러를 반도체 구매에 들이면서 18위에서 10위로 급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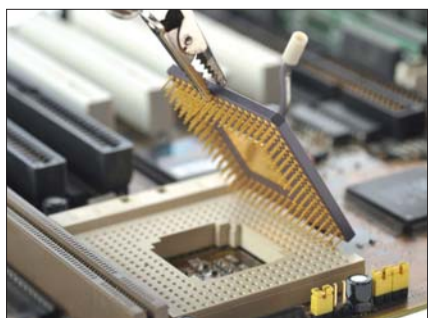
(반도체 투자금액 순위)

(단위: 백만달러)

2017년 순위	2018년 순위	회사	2017년 투자금액	2018년 투자금액	2018년 시장점유율(%)	성장률(%)*
1	1	삼성전자	40,408	43,421	9.1	7.5
2	2	애플	38,834	41,883	8.8	7.9
5	3	화웨이	14,558	21,131	4.4	45.2
3	4	델	15,606	19,799	4.2	26.9
4	5	레노보	15,173	17,658	3.7	16.4
6	6	BBK 일렉트로닉스	11,679	13,720	2.9	17.5
7	7	HP Inc.	10,632	11,584	2.4	9.0
13	8	킹스톤 테크놀로지	5,273	7,843	1.6	48.7
8	9	HP 엔터프라이즈	6,543	7,372	1.5	12.7
18	10	샤오미	4,364	7,103	1.5	62.8

*성장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자료=가트너



체 구매에 들이면서 18위에서 10위로 급상승했다.

레노보(151억7300달러)와 BBK 일렉트로닉(116억7900만달러)도 각각 점유

율 3.7%, 2.9%로 5~6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반도체 구매비용을 17% 안팎으로 늘리면서다. 10위 안에 중국기업이 4개나 포진했다.

그 밖에 미국 기업인 델(156억600만달러, 4위)과 HP Inc(106억3200만달러), 킹스톤 테크놀로지(52억7300만달러),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64억4300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9위였지만, 올해는 10위권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바일 시장 부진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김재용 기자

日 언론 "현대·대우 합병 큰 위협"

>> 1면 '조선업 빅딜에 中·日...'서 계속

대우조선해양 인수 난항 가능성도 중국서 견제성 합병 추진 나서기도

또 일본은 자국사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승인 거절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JFE홀딩스의 유니버설조선과 IHI그룹의 IHIMU가 합병해 JMU를 만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인수가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내 조선업체의 합병 추진 소식을 접한 중국도 자국 조선소인 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선박중공업집단공사(CSIC)간 합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두 회사를 합병하게 위해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합병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통합 매출액은 810억 달러(90조6390억원)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연간 매출액을 합친 것 보다 2배 이상 많다. 현재 중국정부의 합병 추진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추진 중인 국내 조선업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조선업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합병이 되면 기술 혁신과 내부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개혁에도 불이 붙어 국내 조선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의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삼성중공업에도 투자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전 참여에 고민할 시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산업은행은 다음달 4일 최종 낙찰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초 대우조선과의 조선통합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인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면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조선업체 측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전제 하에 일본 측에서 반대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연우 기자 yw964@